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8월 27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시며 영웅한 인민해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명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 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해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 전체 해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성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해병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해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부 축하방문을 기념하여 해군무력의 주요지휘관들과 건군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부대군인회관에서 해군장병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체육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회열과 랑만이 경기장에 차넘치였다.

군종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강한 승부심과 열기면 응원 속에 시종 치렬하게 진행된 경기에서는 해군팀이 공군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세대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이어 사랑하는 내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미더운 해군장병들을 따스이 고무해주시였다.

전체 해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해군절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해군의 영웅한 장병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의가 담긴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사나운 파도에도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라를 역세게 틀어쥐고 충성의 항로를 이어온 조선인민군 해군의 성스러운 70여성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우리 당의 해군중시사상과 해군무력을 무적필승의 군종으로 장성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의 전체

장병들이 일치단결하여 주체적해군무력발전의 최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가는 리라는 믿음을 표명하시면서 영웅적 인민해군의 강대성을 계속 높이 떨치고 그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용감히,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나가지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지휘소를 찾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해군의 작전상황을 보고받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작전지휘소의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작전

지휘 및 정황관리정보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으로부터 해군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당중앙의 전략전술적기도에 맞게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추축하기 위한 주체적해군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작전지휘소를 돌아보신 후 해군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해군팅과 공군팅사이의 배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오메에도 그리며 뵈고싶던 경애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각별한 사랑과 혈연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국가방위의 전초병, 바다의 맹장들로 더욱 역세게 준비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사령부에 대한 축하방문을 마치고 김정은 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담아 환송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에 대한 축하방문은 해군무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중대한 이정표로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경축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절에 즈음하여 8월 27일 저녁 경축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김명식해군대장과 정치위원인 김창국해군중장을 비롯한 해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과 해군 동, 서함대장들, 관하 수장 및 수중함선대장들과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초대되였다.

조용원,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뜻깊은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축하방문하시며 온 하루를 해군장병들과 함께 보내시며 백전필승의 기상과 힘을 새롭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의 세계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언급하시였다.

그는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오늘의 행복한 시간들에는 해군의 장병들 모두가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예국

용장, 승전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라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전체 지휘관들이 총결기하여 당중앙의 영웅한 결사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해군이 공화국의 중추무력, 핵심군종으로서 승리의 항로를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김정은 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고 미덥고 끝끝한 해군의 지휘관들과 정깊은 말씀을 나누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우리의 국권과 국위를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가장 격렬한 대결장에서 쟁취한 승전을 우리는 더 순결하게 더 당당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철한 해병정신이 신성한 령해를 굳건히 지킬 때 조국의 바다는 평온하고 이 땅의 모든것이 불멸의 영예와 값진 재부로 빛을 뿌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연회장에는 부국강병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령장과 해군무력의 핵심골들의 혈연적유대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숭엄히 펼쳐졌다.

해군지휘관들은 받아안은 오늘이 사랑과 믿음을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의 불멸의 명성과 더불어 빛나는 공화국해군의 휘황찬란한 전도와 끊임없는 장성강화를 위하여 일심분투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